

한·일 대륙붕 7광구, 물거품 되는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우려했던 올해 6월 25일부터 가능해진 일본으로부터의 7광구 개발 종료 통고가 아직 없다. 우리에게 7광구로 더 익숙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50년 만기로 2028년에 종료되며, 계약 당사자인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이 종료 3년 전에 서면 통고로도 계약이 종료된다. 7광구는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이다. 한·일 대륙붕 개발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1968년 10월 유엔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7광구가 위치한 인접 대륙붕 지역에 풍부한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밝혔다. 한국은 1970년에 7광구를 선포했고, 당시 석유를 해외에 의존하던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륙붕문제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의제가 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74년 1월 3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지만, 정식 발효는 4년 뒤 이뤄졌다. 한국이 1974년 12월에 국회 동의를 얻었지만, 일본은 공동

개발구역(JDZ)에 대한 불만으로 4년 뒤인 1978년에야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후 1986년까지는 공동탐사와 7개 공구 시추를 했지만, 경제성이 있는 유전은 발견하지 못했다. 급기야 1993년 9월 한·일 양측 조광권자는 유전발견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조광권을 모두 반납했고, 공동탐사도 중단됐다.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국민의정부 시절인 2001년 양국 산업부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2002년 양국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의 7광구 내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를 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공동탐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동탐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7광구 공동탐사에 나름 적극적이었던 일본 정부가 1993년 이후 소극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론 석유매장의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륙붕 기준과 경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즉, 대륙붕에 대한 ICJ의 판결이 1969년에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선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륙붕 인접 국가 간의

중간선의 거리를 따르는 쪽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2028년 한·일 공동개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7광구는 한·중·일 3국 간 영유권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명재경 각(命在頃刻)의 상황에 놓이게 될 7광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한국은 대륙붕의 자연 연장보다 등거리 우선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다. 왜냐면 새로 성립된 국제관습법은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한 국가엔 적용되지 않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7광구 인접 북서면에 있는 5광구에서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일 여기서 석유 시추가 이뤄진다면, 이는 일본이 하여금 공동개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빨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는 한·일 양국이 중국의 대륙붕 주장에 대한 협의와 공동 대처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물론 국회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역대 일본과 외교적으로 가장 관계가 긴밀했던 지난 정부에서 7광구 공동탐사의 물꼬를 다시 트지 못한 것은 석연찮고 아쉬울 따름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민주주의라는 햇살 아래서 자란 문화강국



기저수첩
서예진
(정치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팝, K-드라마, K-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지금은 국무총리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한 당의 입장문 마지막 문장이다. 당시에 기자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는 발언의 뜻을 몰랐다.

백범일지 부록 ‘나의 소원’에 있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문장은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어

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나의 소원’이 생각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오스카상을 타기도 하고, 드라마, 영화, 식품뿐 아니라 시위현장도 찾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드라마가 인기있거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 건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됐다. 불과 한 세대 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일 아닌가. 그런데 최근 10년 전에 보던 중국드라마를 다시 보다가 깨달았다. 우리는 민주주의 덕을 본 것이라는 걸. 10년 전 쯤, 기자는 ‘량야방’, ‘대군사 사마의’, ‘위장자’, ‘후궁견환전’, ‘연희공략’ 등 여러 중국 드라마를 봤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작품은 보지 않는다. 손이 안 가서다. 중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라는 부서가 방송과 출판 정책 및 심의를 관장한다. 모든 영상출판물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없으면 아예

기획 단계에서 막힌다. 사전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회주의 가치관에 맞느냐다. 그래서 역사왜곡도 할 수 없고, 환상도 안 되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없으니 인간 관계극, 가족화극, 직업정신극 위주로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 기획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셀프 검열’을 해서다. 셀프 검열은 창의성의 말살이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와는 정 반대의 결과 아닐까. 우리나라는 가끔 특정 작품이 역사왜곡을 했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모 드라마는 그런 비판으로 인해 조기 종영했으나, 이것은 당국의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작품조차도 자유로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민주주의라는 햇살이 계속 비취지는 한, 우리 문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4일 (음 9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48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60년생 이직이나 진로변경은 불리하니 심각하게 고민해야. 72년생 뒤늦은 투자는 인생의 먹구름. 84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나서자.



37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49년생 남의 실수가 내게는 기회로 오지만 웬지 불편. 61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73년생 사람은 누구나 각각의 운명이 있다. 85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자중.



38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업무를 열심히 하라. 50년생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다. 62년생 항상 소자품을 잘 챙겨라. 74년생 큰 흐름을 벗어나지 말고 움직여라. 86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39년생 시작한 일에 기대는 많으나 실리는 없다. 51년생 어린 사람과 연쟁이 생기니 말조심하자. 63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중시하자. 75년생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자. 87년생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안에 경사가 있다.



4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53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65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를. 77년생 다투더라도 어떤 인생이든 꽃피는 시기는 있다. 89년생 사랑이 부족하다면 반려견을 절대 키우지 마라.



41년생 닭피와의 거래는 손조롭다. 53년생 삼각관계에 간섭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65년생 환경 좋은 곳에서 마음을 다스려라. 77년생 탁월한 성실함이 나를 지탱해왔다. 89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찾자.



42년생 사돈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54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6년생 이사는 해도 건축으로 낭비를 줄여가며 해야. 78년생 돌아봄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는 법인데. 90년생 남이 차린 밥상이 불편하다.



43년생 혈관질환이 의심되니 건강검진을 받자. 55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며 따라가다 빛만 진다. 67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79년생 아침부터 호랑이 떼와 육신각신이다. 91년생 부모님의 도움이 감사할 줄도 알아라.



44년생 마음이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56년생 일을 자꾸 만들어 크게 벌이지 않도록. 68년생 아니라고 생각할 때 바로 잡아야. 80년생 손 재수가 있으니 세금을 미리 내자. 92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45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57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가 없다. 69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지혜를 갖자. 81년생 언제 먹구름이 올지 모르니 더 겸손하게 93년생 금할수록 서두르지 마라.



46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58년생 결혼생활은 양보와 이해로 이루어진다. 70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82년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 건강 유의. 94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



47년생 작은 것에 집착 말고 일단 보고 진행. 59년생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자산. 71년생 고인 일은 부모님의 조인으로 해결. 83년생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데. 95년생 백만 송이의 장미가 길에 널여있지만 가시도 있다.



김상회의四季 신승검 묘역의 명당

강원도 춘천에는 명당 중의 명당 춘천시 서면에 있는 신승검 장군 묘역이다. 이 묘역은 풍수지리의 교과서 같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유는 주변 지형의 형상과 기운의 응집이 눈에 띄일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다. 신승검은 후삼국 시대에 왕건을 구한 충절의 상징이다. 왕건이 적군에 포위당해 위기에 처했을 때 주군을 대신해 목숨을 바쳤다. 왕건은 신승검 묘를 이곳에 만들고 도굴을 막으려고 세 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었다. 최고의 충신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다. 묘역을 정할 때 첫손에 꼽아야 할 것은 용맥과 혈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춘천 서면은 북배산의 용맥이 내달리다 머무는 곳 힘차게 내려오던 산세가 부드러운 기운으로 변화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운이 응집한 지역 묘의 입지는 산세 수세 방위 지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하며 그 핵심이 혈 자리다. 혈 자리는 용맥이 응집하여 생기가 뭉친 곳으로 맥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와 포근히 감싸안는 형세를 갖춰야 한다. 묘역의 혈은 산줄기가 내려오면서 완만히 멈추어 용이 잠든 듯한 형상 속에 자리하고 있다. 혈 자리 주변에는 토질이 부드럽고 습기도 적당하며 기운이 머물기 좋다. 묘역 앞쪽으로는 평탄하고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명당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신승검 묘역은 공을 많이 들인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주산과 안산의 형세 청룡과 백호의 길이 혈 자리가 있는 지점의 산세와 토질 등이 풍수 이론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균형은 물론이고 안정성까지 갖춘 명당이다. 명당은 후손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자연의 맑은 기운인 청기가 강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장수마을이 있거나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그런 이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결산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7	8	9	8	1	2	9
8	9	2	9	1	8	6	9
8	1	9	6	7	2	1	8
9	6	8	2	8	9	7	1
9	1	7	1	8	2	9	8
1	2	8	6	7	1	9	8
2	9	7	8	9	1	1	6
7	8	9	1	2	6	8	9
8	9	6	1	1	9	8	7

2	8	1	7	9	9	1	8	6
9	8	9	2	6	1	8	1	7
1	9	8	6	8	7	9	1	2
1	7	2	9	8	1	1	6	9
8	6	7	8	1	9	2	9	1
1	1	6	9	9	8	7	2	8
9	8	1	1	2	8	8	9	9
6	9	1	1	2	8	6	7	8
7	2	9	8	1	6	9	8	1